

피플Q | 조수미를 미치게 하는 것들

■ 조수미의 오페라 뒷 이야기

침 세례 고스란히... “무대 서면 곤혹”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빛나 보이는 스타들이지만 그 뒷면을 알고 나면 환상이 깨져 버릴 수도 있다. 손을 꼭 잡고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고 있는 두 사람(오른쪽 조수미)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사진제공 | SMI 엔터테인먼트

오페라 무대 위의 스타들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남녀 주인공이 서로 지긋하게 눈길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이중창을 부를 때면 관객의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그 순간 소프라노는 상대방 테너의 입에서 튀는 침 세례를 고스란히 얼굴에 맞으며 역겨움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조수미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조수미가 오페라 무대에 털 서는 가장 큰 이유가 '침 튀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니 이쯤 되면 말 다했다.

사실 공연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떤 남자 성악가는 공연 중 체력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살은 고기를 잘게 썰어 의상 주머니에 넣어 뒀다가 조수미가 노래하는 동안 몰래 입에 우겨넣기도 했다. 이런 경우엔 침뿐만 아니라 고기 조각이 동시에 분수처럼 쏟아진다. 노래하다 말고 방귀를 풍풍 끼는 사람, 저녁식사 메뉴를 단박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입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대개 듀엣을 부르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함께 고음을 힘차고 길게 끌며 끝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상대역인 남자 성악가가 조수미에 비해 호흡이 짧은 경우가 많다는 것. 관중에게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비추어지지만 사실은 남자가 조수미의 손을 꼬집고 할퀴는 중이다. '난 더 이상 못 끌겠으니 얼른 이쯤에서 끝자'는 신호이다. 물론 조수미는 이를 무시하고 더 길게 끌어버리곤 한다. 왜냐고? 재미있으니까!

조수미는 요즘엔 배역이 들어오면 다른 성악가는 누가 캐스팅되며, 지휘자·연출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고려한다. 될 수 있으면 마음과 성격이 맞는 사람과 공연하고 싶기 때문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조수미의 혈액형별 추천 음악

독자들을 위한 조수미의 추천 음악. 행복하고 여유있는 하루를 만드는 음악들이다. '아침을 깨우는 최고의 음악'으로 조수미는 그리스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Never on Sunday)'의 주제가를 꼽았다. 그리스의 푸른 바다와 섬, 하얀 집들이 연상되는 기분좋은 곡으로, 조수미의 아침을 깨우는 음악이기도 하다. 나른한 오후. 커피, 차, 초콜릿이라도 들며 음악으로 또 한 번 기운을 내보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유명한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어떨까. 조수미는 세계 최고의 '밤의 여왕' 가수이기도 하다.

○ A형 & AB형

아침 :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 '봄의 소리'
점심 : 베토벤 '이히 리베 디히(Ich liebe dich)'
저녁 : A.L. 베버 '러브 네버 다이즈(Love never dies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속편 주제가)

○ B형 & O형

아침 : '피레우스의 아이들'(Pote Tin Kyriaki·조수미 앨범 '미싱유' 중에서)
점심 : 헨델 오라토리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저녁 : '러브 어페어'(Love Affair·조수미 앨범 '비 해피(Be Happy)') 중에서)



학창시절 조수미는 활발하고 강한 체력을 지닌 '여걸'이었다. 남자보다 더 남자같은 여자 조수미는 이제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가 됐다. 사진제공 | 유니버설 뮤직

밤새 술먹고도 거뜰 완전히 남자였죠 뭐

■ 테너 박종호, 조수미를 말하다

활달한 성격 체력도 단연 으뜸 학창시절 이미 타고난 음악가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박종호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와 테너 성악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김종환이 작곡·작사한 '당신만은 못해요'를 발표하며 가수로도 데뷔했다.



“완전히 남자였죠, 뭐.”

테너 박종호는 조수미와 선화예술고등학교, 서울음대 동기동창이다. 한 학년 위 선배로는 소프라노 신영옥이 있어 세 명이 나란히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박종호는 동창생 조수미를 “활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에 엄청난게 잘 놀던 친구”로 기억한다. 특히 체력에 관한 한 남자들도 못 당했다. 밤새 같이 술 마시고 놀고도 다음날 아침이면 멀쩡히 강의실에 나타나 남학생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일쑤였다.

“하루는 딱 보니 전날 '심하게'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상태로 레슨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재 이제 죽었다' 했죠. 담당교수님이 이경숙 선생님이 신데 엄청난 무서우시거든요. 그런데 수미가 노래를 딱 하나만 교수님이 '브라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알았

죠. '재는 타고났구나'라는 걸.”

조수미가 서울대 음대사상 최고의 실기점수로 입학했다면 박종호는 입학 후 서울대 음대사상 최고의 실기학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도 “나는 소리 좋은 학생이었고, 수미는 그때 이미 음악가였다”라고 털어놓았다.

조수미의 '터프함'을 느낄 수 있는 예고 때 수학여행 에피소드.

밤새 캠프파이어를 하며 놀고 싶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학생부장 선생이 전원 '철수령'을 내렸다. 성격 급한 남학생이 항의를 했다가 모질게 혼이 났다.

그때 조수미가 나섰다. 큼직한 카세트라디오를 들고 불 꺼진 캠프파이어로 가더니 땀뻘뻘하게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며 학생들에게 “나와서 놀자”고 부추겼다.

“애들이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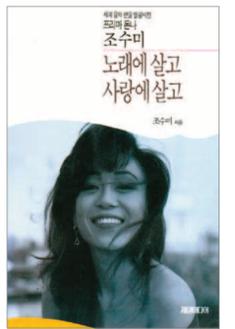
‘와!’하고 놀랐죠. 저하고 몇몇이 나가서 ‘너 이리다 죽는다’고 말려도 요 지부동이에요. 여하튼 걸물이었다니까요.”

대학 시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교양과목 강의실에서 음대생과 사회대생이 함께 강의를 듣는 날이었는데, 강의가 시작되기 전 사회대생들이 '조수경(조수미의 본명)! 조수경!'을 연호했다고 한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조수미가 쓰는 일이나 강의실 앞으로 나가더니 피아노 뚜껑을 열고는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브라 스트라이센드의 '우먼 인 러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부르는지 바브라 스트라이센드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았다.

이날 강의실에 있던 남학생 전원이 조수미에게 흠뻑 반해버리고 말았음은 물론이다.

■ 에필로그



기자 초년생때 산 자서전... 16년만에 사인 받을줄이야

조수미를 만나기 전 마음이 꽤 설레었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녀에게 조용히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조수미가 서른두 살 때 쓴 자서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의 1994년 초판본(사진).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기자는 이 책을 사서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책을 본 조수미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반기면서 사인을 해주었다.

책을 산 때로부터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 이 책을 살 때만 해도 저자에게 사인을 받기까지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32세에 일찌감치 자서전을 쓴 조수미는 50세 즈음해 책을 또 쓰고 싶다고 했다. 이번엔 자서전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보며 느낀 수필집 같은 것이란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조수미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신과의 소통도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독자를 위해 추천곡을 고르며 기자를 위해 짧지만 직접 노래해 주신 것에 감사. 녹음기에 꼭꼭 담아 두었습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최경아교수의 6색 건강요가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섹스요가

가지개 퍼듯 전신이완 군살 쏘옥! 춘곤증 싸악~

춘곤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다. 필자는 춘곤증에 못 이겨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봄이 오면 따사로운 햇살과 향기로운 꽃이 우리를 반기기도 하지만 춘곤증과 같은 불청객이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춘곤증에 시달리는 시간대는 오후 2~3시경이다.

춘곤증은 질병이 아니므로 적절한 요가 동작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대체로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평소보다 비타민 소모량이 3~5배 늘어난다. 우리 몸이 피로하지 않도록 뇌의 활동을 돕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온몸을 가지개 퍼듯 전신을 이완해주는 요가 동작으로 나른한 몸을 상쾌하게 만들어 봄날의 청춘을 만끽하자.



최경아 명지대학교지도교수 | 국민생활요가협회회장 | MBC해설위원



1. 누워 양손은 머리 아래에서 깍지를 끼고 왼발을 접고 숨을 들이마신다.



3. 숨을 들이마시며 원위치하고 오른쪽 무릎을 접는다.



2. 호흡을 내쉬면서 하체를 왼쪽으로 이동한 후 상체도 왼쪽으로 기울여준다. 오른쪽 측면이 이완되도록 한다.



4. 호흡을 내쉬며 하체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상체도 오른쪽으로 기울여준다. 왼쪽 측면이 이완되도록 한다.

※효과:

1. 피로 회복 능력이 좋은 휴식 자세로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2. 옆구리 수축 동작으로 군살 제거에 도움을 준다.

※주의:

양손을 깍지끼거나 양팔을 만세를 부르듯 머리 위로 올리고 수련해도 무방하다.